

한국 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라

- 요한계시록 2: 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교계전문가 6명의 진단과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원인을 찾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발을 떼는 이 공론화 과정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옥성득

UCLA 교수
(1차 7월 14일)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2차 8월 4일)



백소영

강남대 교수
(3차 8월 18일)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
(4차 9월 1일)



배덕만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교수
(5차 9월 15일)



장동민

백석대 교수
(6차 9월 29일)

일 시

2025년 7월 14일 ~ 9월 29일, 격주 월요일 19~21시

장 소

성락성결교회 801호 (성수역 1번 출구,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중 계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기윤실 

참가비

6만원 (회당 1만원, 기윤실 후원회원 50% 할인)

신청 및 문의

bit.ly/한국교회연속토론회

[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12.3계엄 이후 한국 교회 행태에 대한 회개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연속 토론회(4차)

┃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후 원 야다북스

┃ 발간일 2025년 9월 1일

┃ 편 집 이명진

┃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야다북스

4차 토론회 순서 및 내용

Ⅰ 사회 - 신동식 (기윤실 공동대표, 빛과소금교회 목사)

Ⅰ 내용

발제. “한국 교회의 우상숭배”, 한국교회 140년 회고
-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

4p

Ⅰ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문]

“한국교회의 우상숭배”, 한국교회 140년 회고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¹⁾

1. “한국교회의 우상숭배”, 한국교회 140년 회고

가. 이끄는 말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하고, 야다북스가 후원하는,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돌아보는 토론회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우상숭배”라는 큰 줄기를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 끝자락에 있는 일원동교회의 담임목사 권수경입니다. 고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 공부와 목회를 병행하며 30년 가까이 지냈고, 2018년 고신 신대원에 초빙교수로 부름을 받아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여러 과목을 가르쳤고, 지금은 서울 일원동교회를 담임하면서, 외부 강의나 글 쓰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전체 주제가 요한계시록 2:5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는 처음의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그 일이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겠지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 삶을 다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실 정도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춘 외에도 상당히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이 하나로 꾸중을 들었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그 한 가지로 촛대를 옮기신다면, 모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만(약 2:10; 갈 3:10),²⁾ 그보다는 처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곧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든, 빠진 요소 하나든, 어디서 떨어졌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다 드리고, 그래서 제대로 했는데, 중간에 이것저것이 묻고 불순물이 섞이고 모양도 뒤틀려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상숭배라는 주제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우상숭배 때문에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1) 권수경 목사는 서울대 철학과 (BA), 고려신학대학원(M. Div.), 예일대 신학부(STM)와 종교학부(Ph. D.)에서 공부했다. 미국 유학 중 한인교회에서 22년을 담임목사로 일했다. 귀국해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자연과학, 인공지능, 포스트모더니즘, 인문학 등 기독교 세계관의 여러 분야를 가르쳤으며 지금은 서울 일원동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 <번영복음의 속임수>,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 <파스칼 평전>, <정치에 빠진 교회(공저)>, <인공지능과 교회교육(공저)>이 있고 공존과 영생의 진리를 쫓는 <황금률> 출간을 앞두고 있다.

2) 생물학에서 말하는 리비히(Liebig)의 최소율 법칙(Law of the Minimum)이 이와 통한다.

서 우상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흔히들 우상 하면 나무나 돌 같은 조각품을 생각합니다만, 그것들은 상징일 뿐입니다. 인간의 섬김을 받는 실제 우상은 재물, 권력, 명예, 이념, 쾌락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숭배의 근원은 인간의 탐욕입니다(엡 5:5; 골 3:5).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 140년을 우상숭배라는 줄기를 따라 살피는 일은 그런 잘못된 것을 추구한 우리 탐욕의 실체를 파악해 제거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온전한 복음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1) 다른 관점

온전한 복음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스페데스 신부 이야기와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세스페데스(Gregorio de Céspedes, 1551-1611)라는 스페인 가톨릭 신부가 1593년에 부산에 들어와, 가톨릭이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대에 1년간 머무른 일이 있습니다. 일본군 가톨릭 신자를 위해 일했다고 본인이 기록을 남겼는데, 많은 이의 관심이 혹 조선인에게도 전도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거듭 묻는 까닭은 그런 일 자체에 담긴 뜻이 워낙 크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이 양극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³⁾

어떤 사람은 세스페데스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의 전도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침략자의 종교로 알려졌을 것이고 민족사와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했으리라는 논리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세스페데스가 그때 조선인에게 전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겠느냐며 전도하지 않은, 또는 못한,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⁴⁾ 전자가 종교 차제의 의미와 역사성에 비중을 둔다면, 후자는 개인 영혼의 구원 하나에 초점을 둡니다. 전자의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는 종교의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개인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지 물을 수 있고, 후자들에게는 개인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역사와 삶이라는 맥락이 없는 구원이 가능한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⁵⁾ 영혼 구원도, 또 종교의 사회, 역사적 구현도 다 중요하므로, 어느 하나만 옳다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이 둘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구현할 때 온전한 복음을 구현할 수 있겠지요. 구원이 없다면 종교의 맥락이나 역사성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이 둘이 뒤엉키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이론적 원리를 바로 정립한 후에도 현실의 적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세스페데스를 기리는 <그레고리오 세스페데스 문화관(Centro Cultural Gregorio de Céspedes)>이 2016년 스페인의 라만차 지방에 세워졌다. 스페인과 한국의 유대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는 2015년 세스페데스 공원이 조성되었다.

4) 위키피디아 ‘세스페데스’ 항목은 세스페데스를 “조선에 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라 부르며 그가 한 다양한 선교 활동을 부각하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정리한다. 이에 반해 나무위키는 세스페데스가 “조선의 주민들과 접촉한 일은 없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5) 전자는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마 16:26; 18:10; 눅 15:7), 후자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사용할 수 있다(마 5:48; 19:21; 눅 8:14; 요 17:23; 엡 4:13)

이 관점의 차이는 지난 140년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권력, 재물, 명예, 이념 등을 우상처럼 섬겨 온 역사 가운데도, 소위 영혼 구원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우상을 섬긴 듯한 그 행동이 전도의 동력이 된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헌신을 낳은 경우도 무수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역사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넘어, 종교의 의미와 역사성 그리고 구원의 참뜻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참 구원이라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그치지 않겠지요. 구원은 개인의 삶과 사회까지 바꾸는 능력이어야 하니까요. 또 반대로, 그런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를 구원이라 해 버린다면, 종교가 가진 신비적, 형이상학적 차원이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탐구하고 분석하고 논의하되, 반드시 주의 깊게, 또 치밀하게 따져 가면서 해야 온전한 복음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세하던 서구 여러 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해 지배하면서 기독교도 여러 나라에 함께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터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경 진리를 전했다는 모순이 역사와 혼재합니다. 많은 나라의 교회가 침략자의 종교라는 원죄를 오늘도 갖고 있습니다. 그 침략이 인권 유린, 살인과 상해, 억압적 지배, 재물 약탈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니 더 부끄럽지요. 그런 침략은 복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지만, 제국주의가 열어놓은 문이니까 교회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에는 여러 명분과 실체가 뒤섞이기 때문이요, 따라서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는 까닭이지요. 그렇지만 전도했으니 다 잘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 원리,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옳겠지요. 게다가 복음을 핑계로 사리사욕을 추구한 이들과도 있었다면 반드시 꾸짖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하지 못한다면 후손들이 교회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죄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집안에서는 수많은 살인, 간음 등의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세스페데스 에피소드가 종교의 사회적 의미와 구원의 관계를 담고 있다면, 우리 역사에 기록된 황사영 백서 사건은 권력과 신앙, 국가 주권과 신앙의 자유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황사영은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심하게 박해하자, 1801년 청나라에 있는 주교에게 편지를 써, 청나라 정부가 조선에 압력을 넣고, 가능하다면 아예 속국으로 만들고, 프랑스 함대를 동원해 무력시위까지 하여,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허용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가 사전에 발각되어 황사영은 사형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은 유배형을 받았습시다만, 국가 주권과 종교의 자유, 또는 국가 주권과 영혼의 구원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던져줍니다. 기독교인에게 전도는 지상과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른 원리와 방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전도의 중요성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 관계를 일그러뜨릴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국제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국가 주권과 복음 전도가 충돌할 경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사영은 자국의 정치권력에는 맞서는 용기를 보였지만 그보다 더 강한 권력을 의존함으로써 아람을 의지해 북왕국의 도발을 막으려 한 유다를 본받았습니다(대하 16:7).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정치 세력을 이용해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그 고난을 마주하는 올바른 방법인지도 논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황사영의 백서가 발각되지 않고 전달되었다면, 그래서 정말로 청나라 조정이 조선에 압력을 넣고 프랑스 군대의 무력시위까지 있었다면, 박해는 끝나고, 평화로운 전도도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해서 열린 전도의 문은 박해를 무릅쓰고 하는 전도와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은 전파되니 그런 방법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또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천국을 전파하다가 고난받는 길을 택했지, 세력을 모아 권력과 맞서는 방법은 택하지 않았습니까(마 26:53-56).

물론 기생 라합의 사례가 있어 답은 쉽지 않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일반 정치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적군의 스파이가 되어 나라의 멸망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반역과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로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히 11:31; 약 2:25).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은 국가라기보다 교회에 가깝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무너진 여리고는 정치적 주권 단위였으니 당연히 정치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할 책임과 신앙을 위해 그 권력을 배반할 자유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원리도 쉽지 않지만 적용은 더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여호와와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라합은 올바른 선택을 한 유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무엇이 시작인가

주님이 예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이유도 없고 회복할 목표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신라 시대에 경교가 들어왔었다는 자료가 있지만, 실제 기독교 복음은 세스페데스 이후 이백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들어왔습니다. 가톨릭의 경우 1784년 이승훈이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황사영 사건이 보여주듯 가톨릭은 초기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140년을 말합니다만, 이 140년은 그보다 백년 이후, 1884년 매클레이⁶⁾ 선교사가 고종의 허락을 받은 것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제사 등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은 겪었어도 정부나 기관의 박해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국운이 기울던 무렵 복음이 도입되면서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민족사가 동반관계를 이룬 거지요. 특히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한 일본이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섬겼기에 우리는 참 신앙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임진왜란 때의 고니시처럼 기독교를 앞세운 나라였다면 광복을 위한 겨레의 노력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투쟁도 포함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민족사와 공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라를 잃고 주저앉은 겨레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까지 광복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겨레는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복음의 의미를 영적으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함께 경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80년 전에 맞이한 광복을, 우리 겨레의 투쟁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Robert Samuel McClay, 1824-1907. 미국 감리교 선교사. 이보다 52년 앞선 1832년 칼 귀츨라프가 충남 고대도에서 한 달간 전도했다는 사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개신교 초기에는 암울한 사회 분위기 덕분에 전천년설 종말론⁷⁾이 주도했습니다. 열강의 다툼으로 찢어진 나라가 결국 이웃 일본에 먹히면서, 얼른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현실 도피적 태도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바르게 믿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멋진 첫 사랑이었습니다. 빼앗긴 국권과 함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다 잃은 상태에서 종말론적으로 약간의 치우침은 있었을지언정, 이 땅의 것들이 복음을 더럽히거나, 왜곡하거나, 타락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구한말에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민족 전체를 이웃으로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 학교를 함께 세워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빈민과 여성들에게 관심을 쏟아 해방의 복음을 문자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구제 사업과 함께 병원을 개설해 몸의 질병을 영혼의 병과 함께 고쳤습니다. 국권을 빼앗겼을 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부당함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학교 교육, 사회 계몽, 경제 운동, 무장 훈련과 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일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그 좋은 보기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써 온 결과 80년 전 광복을 맞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연합군의 승리가 마지막 점을 찍어 주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돌아보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떨어진 순간은 광복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압과 결핍 가운데 잘 지켜오던 첫사랑을 자유가 주어진 순간 바로 빼앗긴 셈입니다. 이후 이어진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역사를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을 두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부터 다르고, 같은 사실을 두고 내리는 해석도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섬긴 우상이 무엇이며 그 우상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왜곡했나 하는 점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교회는 권력을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재물을 향한 탐욕도 숨어 있었고, 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경험하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만 배제하면 권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여러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념⁸⁾도 우상숭배의 가능성으로 처음부터 교회에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공 사상이 정치권보다 교회를 더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공산주의, 특히 유물론에 대한 거부가 핵심이었는데, 우리의 반공은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은 거리낌 없이 수용한 채 정치적 공산주의 하나만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원리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적인 극단성을 보였습니다.

7) 천년왕국 전 재림설. 주님이 재림하신 뒤 왕국을 세워 천 년 동안 통치하신 다음 마귀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종말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는 다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론이고, 천년왕국은 문자적 천 년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보는 무천년설도 있다.

8) 팀 켈러는 이념을 “지적인 우상”이라 부른다. 팀 켈러,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베가박스, 2015), 27.

떨어진 곳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사실 그런 곳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지만 돌아갈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늘이었던 것처럼(히 11:15-16), 우리 교회사 역시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인데 초창기 역사를 뒤져 거기서 우리가 회복할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상 교회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웠던 첫사랑이지만 거기에도 이미 인간의 탐욕과 여러 우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우리의 일그러진 역사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바로 보게 해 주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나. 권력 우상

첫 우상인 권력부터 보겠습니다. 광복의 그날이 우리가 떨어진 순간이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교회는 공적으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또 바깥에서는 교육, 계몽, 구제, 봉사 등으로 처음 사랑을 키우던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는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천왕숭배 종교를 엮어 조선을 통치했는데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종교 행위인 신사참배를 단순한 국가 의식으로 규정하고 수용했습니다. 우상을 우상이 아니라 부르고 절을 했으니, 지록위마 이야기의 기독교식 적용이었습니다. 설령 단순한 국가 의식이라 해도 그 의식은 바탕은 군국주의 이념으로서 그 자체로도 이미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이념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우상숭배 등 세 가지 우상숭배를 동시에 행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끝까지 저항한 교회와 교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의 교회사도 세 겹 우상숭배를 주도한 이들이 계속 이끌어 갔고, 한 번 떨어진 이후에는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떨어진 그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광복 직후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력은 많은 이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교회도 이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정치 중립 원칙을 천명한 교회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어떤 체제를 택할 것인지, 그 일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교회는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연합군 주둔, 신탁통치, 남북 분열 등으로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가운데 복잡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론도 현실도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어서 권력이 우상이 될 틈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고난과 광복에 동참한 종교로서 민족사와 갈등은 크게 겪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민족사에 많은 유익과 함께 해악도 끼쳐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해악의 출발점에 놓인 것이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사는 민족사와 평화롭게 공존했다기보다는 민족사를 정의, 평화, 공평, 자비 등의 보편 가치에서 이탈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1) 이승만

교회, 특히 개신교의 권력 승배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투쟁한 독립운동가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반민특위 해산,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등 부정적인 기록도 역사에 많이 남겼습니다.

이승만 시절 교회는 권력에 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력과 가까이 지내며 그 권력을 공유한 이들도 있고, 반대로 정치적 불의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대통령이 기독교에 호의적인 분위기 가운데 정부 수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수 교회는 교회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자신감 속에 이승만 정권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권력과 가까웠기에 안전을 제안하거나 사람을 추천한 이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시작한 발췌개헌⁹⁾ 이후에도 기독교 대표 회의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편중은 역작용을 일으켜 사사오입 개헌¹⁰⁾ 이후에는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흐름을 낳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승만을 지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정부가 기독교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헌국회 개회식 이후 국가 행사를 기독교적으로 치렀고, 국기 경례를 기독교의 요청에 따라 주목으로 바꾸었으며, 육군에 종군목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¹¹⁾ 정부가 성경적 통치 원리를 구현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는 보편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를 떠나, 자기 종교에 호의적인 권력을 지지하는 일종의 압력단체로 전락한 셈입니다. 또 정의, 인권, 자유, 약자 보호 등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외면하면서 종교적 형식에 치중하는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삶과 단절시킨 채 종교의 테두리에 가두는 왜곡이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반공주의였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고 이승만은 아예 반공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 무렵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로 한경직 목사를 꼽을 수 있는데 한경직은 북한에서 사역하다가 내려온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반공 정책보다 더 강한 반공주의를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을 때로 지지하고 때로 반대했지만, 반공주의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한경직은 공산주의 유물론을 용, 사단의 회 등 성경적 상징을 이용해 거듭 비판했습니다.¹²⁾ 한경직 자신이 내세운 기독교 건국론에도 공산주의와 유물론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으로 골자로 하는 개헌. 국회의 신임을 얻지 못한 이승만이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한 편법 개헌이었다.

10) 1954년 11월 27일. 이승만의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법이 의결정족수 미달인데도 산수의 사사오입 논리를 이용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 사건.

11) 임희국, “제 1공화국 시대(1948-1960) 장로교회의 정치참여, 이와 관련된 한경직 목사의 설교” <장신논단> 44호, 2권, 2012년, 21-22.

12) 한경직의 여러 설교. 유승혁, “교회 정치화의 역사적 뿌리, ‘기독교 건국론’ <정치에 빠진 교회> (도서출판 야다, 2025), 119-120.

공산주의와 유물론은 반성경적 사상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유물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하나를 특정하여 우리가 반대해야 할 절대적인 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념을 이상화한 일입니다. 한경직은 1947년 서북청년단이 적극 개입한 제주 4.3 사건에서 반공의 이름으로 폭력을 용인하여 반공 이념이 이미 우상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¹³⁾ 그리고 반공주의를 북한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북한을 오직 적으로만 인식하게 하였고 그 결과 남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해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을 주적 아니면 선교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한국교회의 양극화된 관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과 현실을 혼동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경직은 한민족을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며 성경적 상징을 끌어와 민족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¹⁴⁾ 민족 전체를 복음화하겠다는 열정은 참 귀합니다. 또 구원은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세속 민족, 그것도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지 않은 민족을,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는 성경적 상징과 비유를 한 민족에게 직접 적용하는 신학적 오류로 이어졌습니다.¹⁵⁾ 그런 관점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수 국민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고, 반민족적 흐름을 형성하여 전도와 봉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가 말한 ‘무례한 기독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¹⁶⁾ 이런 기류는 우리 시대 기독교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에서도 감지됩니다. 민족을 교회와 동일시하면 나도 모르게 정복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그런 우상은 이내 극단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죽여도 좋다고 한 극우파의 발언¹⁷⁾이 이런 흐름의 연장일 것입니다.

한경직은 물질을 조심하라고 자주 설교했고, 자신이 설교에 맞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부분들이 씨가 되어 훗날 나무로 자랐습니다. 한경직은 유물론이 가난한 나라에서 힘을 쓴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공산주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주 설교했습니다.¹⁸⁾ 그런데 정치 경제적 변명이 답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유물론의 골자입니다. 철학적 정치적 유물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물질은 언제나 원인일 뿐 절대 답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낙원인 듯 속을 수 있지만, 풍요한 재물은 가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조심하라 하실 때 언제나 부자를 보기로 드셨습니다(마 13:22; 눅 12:15-21; 16:19-31). 유물론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사람이 유물론을 주창한 마르크스와 비슷한 논리를 폈으니 참 역설입니다. 유물론을 정치, 경제, 철학적으로 보았을 뿐, 성경적, 신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한경직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가 싫어한 것은 사실 유물론이 아니라 가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을 해결책으로 본 이런 관점은 머지않아 부자가 된 대한민국의 재물 승배로 발전합니다.

13) 김병희 편,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 55-56.

14) 한경직, “대한민족아, 깨어라”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제 1권, 120.

15) 한경직뿐 아니라 적지 않은 목사와 신학자가 이런 오류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북 이스라엘의 갈등과 교류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한 경우다. 최근 김양재 목사가 민족사를 구속사와 혼동하고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설교를 했다.

16) 리처드 마우,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IVP, 2014). 영어 Richard Mouw,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Downers Grove, IL: IVP, 1992.

17) “이재명 대표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장신대 소기천 교수의 2025년 3월 13일 페이스북 포스팅.

18) 임희국, 29.

2) 박정희

한국교회의 권력 승배는 박정희 정권과 더불어 무르익게 됩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았고 1963년부터 1979년 10월까지 18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어떤 연구가는 박정희의 통치가 ‘종교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예리한 지적입니다.¹⁹⁾ 교회가 권력과 결탁한 결과 왜곡된 복음이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1961년 박정희가 일으킨 오일룩 군사정변을 대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권력이 무서웠는지, 나도 권력을 나눠 갖고 싶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정변을 하나님의 공의로 믿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오일룩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한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건이었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나라를 공산주의와 부정부패에서 건지려는 결단으로 환영했고, 한경직과 영락교회도 KNCC 성명서와 닮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적이지는 않았지만 부득이했다’는 문구도 여러 성명서에 다 나오는데, 훗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보험적 수식어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던 한경직과 김활란은 오일룩 이후 미국으로 가 군사 정변을 옹호하며 인정해 달라는 수고도 맡아 했습니다.

교회가 박정희를 쉽게 수용한 이유는 반공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과 한국교회가 시작부터 반공주의로 대동단결을 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반공은 이미 이데올로기가 되고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무서운 사상이 분명하지만, 그 사상을 반대하자고 사람 목숨까지 가버리 여긴다면 그것도 똑같이 위험한 이념의 우상입니다. 이를테면 한국교회가 1964년 베트남 파병을 찬성한 주 이유가 반공이었는데, 이는 생명보다 이념을 중시한 일로서, “기독교적 이성과 가치관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²⁰⁾ 파병에 반대한 이들은 이념보다 생명이 우선이라 믿었습니다.²¹⁾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유익을 거론한 이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은 재물을 사람 목숨보다 앞세운 재물 승배라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면, 그런 사상적 기반에서 이루어진 경제 발전은 처음부터 우상 승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²²⁾

1969년 10월 박정희의 삼선개헌을 계기로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진보 교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선지자적 비판을 강조했고, 보수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직, 김준곤, 조용기, 김장환 등 현장 사역자 외에 박윤선, 박형룡, 김의환 등 신학자들도 삼선개헌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교회는 권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합동교단은 1969년 54회 총회에서 삼선개헌 지지 성명을 냈는데, 총회신학교 인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총회신학교는 그해 연말 4년제 총회신학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19)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 2021년 11월 6일, 5.

20) 류대영,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태도,” 2004년 6월 24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

21) 정병준, 16.

22) 반공만을 외치던 한국교회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당황했다. KNCC는 우려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정치 세계를 절대적 이념으로 뒷받침해주다가 헛발을 디딘 셈이다.

한경직은 박정희 정권을 호의적으로 보았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등 반대한 일도 없지만 군사정부를 부득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인권운동 같은 일은 멀리하고 그저 전도와 교육에 매진했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²³⁾ 한편 복음 전파에 애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권 문제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다는 발언은 온전한 복음을 포기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퍼뜨렸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운영이든 교회 담임이든 단체 운영이든, 권력의 그늘에서 전하는 복음은 권력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비롯하여 정의, 공평, 투명, 배려 등 성경적 보편적 가치가 무시될 수밖에 없지요. 이후의 경제성장기에는 불평등한 분배와 약자의 희생을 낳게 됩니다. 한경직은 삼선개헌 얼마 뒤인 1970년 5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박정희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 1972년에는 교단 지도자급 인사들 및 신학대 학장들 40명과 함께 시월유신을 공개 지지했으며,²⁴⁾ 1980년 8월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을 김준곤, 김인득 등과 함께 기독교 용어로 축복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기가 어려웠지, 열 걸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권력 승배의 중심을 차지한 사람은 한국 대학생선교회(CCC)를 창립해 거대하게 키운 김준곤 목사입니다. 김준곤과 박정희의 관계는 밀월이라 불릴 정도로 가까웠는데,²⁵⁾ 이 기간 서로 다른 관점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김준곤 목사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한 분이고, 그분의 전도와 활동으로 예수를 믿고 평생을 헌신한 일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자 가운데 유명한 교회 지도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80년대 초반 CCC 여름 수련회가 열리던 심천 미루나무 숲은 청년 전도의 상징이었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찬양도 많이들 불렀습니다. 그런 분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오판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하고 잘못된 일들은 후대의 우리를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히 13:7; 고전 10:11-14).

김준곤과 박정희는 일종의 오월동주였습니다. 박정희는 독재 정치와 장기 집권의 방해 세력을 누를 목적으로 김준곤 목사를 만났고²⁶⁾ 김 목사는 손쉬운 전도 방법을 얻기 위해 박정희 권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종교인이 정치와 가깝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권력 가까이에서 종교인 역할을 바로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준곤은 삼선개헌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1973년에는 시월유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성공을 빌었습니다.²⁷⁾ 그 결과 얻어낸 것은 전군 신자화 계획을 추진하고, 빌리 그레이엄 초청 집회를 개최하고, CCC 엑스플로 집회를 개최하고, 또 서울 중심부에 회관을 지은 일입니다.²⁸⁾ CCC는 박정희 시절인 19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이

23) 한경직, “기독교와 현대문명”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제 1권, 109-110. 유승혁, 110.

24) 한경직은 유신 지지 이유로 민족복음화와 군인전도를 꼽았다. 김명혁 “목회자 한경직 목사” 『한경직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학술 대회』 (2002. 10.31). 정병준, 20.

25) 김철해 교수는 고 김준곤 기념 심포지엄에서 김준곤을 “박정희 개인의 목사,” “청와대 담당 목사,” “대한민국 종교국 비공식 장관” 등으로 묘사한다. “김준곤 목사, 박정희에게도 당당... ‘민족복음화,’ 현대사에 필수” 크리스천투데이, 2022년 8월 30일.

26) 1967년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계기로 박정희는 학생운동의 에너지를 반공으로 돌리기 위해 CCC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김준곤에게 “전권”(carte blanche)을 부여했다고 쓴 이도 있다. Jim Stentzel, “The Anti-communist Captivity of the Church,” *Sojourners* (April, 1977), 19. 정병준 17.

27) 1973년 5월 국가조찬기도회 설교. “제 6회 대통령조찬기도회 메시지” <교회연합신보> 1973년 5월 6일. 임안섭 “삭제된 김준곤 목사의 ‘유신 찬양 설교’” 뉴스앤조이, 2012년 10월 18일.

28) 2013년 10월 25일 몇 교회가 모여 박정희 추모예배라는 우상 숭배적 행사를 가졌는데 박정희를 추모하는

루었고 엄청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정인이나 단체의 유익이 아닌 영혼 구원의 열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수십만 군인에게 전도할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통치자의 제안을 어느 목사가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정대로 전군 신자화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권력과 함께 선포된 기묘한 소식이었지만 전도는 분명 전도였습니다.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김준곤도 한경직처럼 민족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가졌고 시월유신으로 우리 민족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²⁹⁾ 김준곤이 시작한 성시화운동도 같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³⁰⁾ 1973년 5월 말에는 빌리 그레이엄 초청 집회가 열렸습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모였고, 결신자도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9월에는 조용기 목사가 주관하는 오순절 세계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고, 이듬해인 1974년 8월에는 CCC가 주관하는 엑스플로 74가 열렸습니다. 엑스플로 핸드북에는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썼습니다.³¹⁾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기도 응답이 아닐 필요는 없겠지요. 1975년 5월에는 정동 CCC 대강당에서 반공구국기독교학생운동 특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라 위해 순국하고 주님 위해 순교하자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도발에는 육탄으로 맞서는 의지를 가지고, 반공의 면역체가 되고 전도의 새 종족이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절대적 목표가 된 반공과 전도의 신비로운 동거였습니다. 김준곤이 국내에서 박정희를 두둔하는 동안 CCC 세계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는 미국에서 박정희를 옹호했습니다. 반대자를 체포하고 투옥한 것까지 옹호하면서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충분하다고 선전했습니다.³²⁾ 얼마나 열렬하게 옹호했는지 빌리 그레이엄조차도 빌 브라이트의 주장을 비판할 정도였습니다.³³⁾

문제는 복음이었습니다. 독재자의 제안을 수용하자면 그 사람의 반성경적 정책 이를테면 전제 정치, 인권 탄압, 약자 소외 등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시도한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었고,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반공주의 역시 남북한을 대화와 평화로 이끌기보다 대립과 반목을 키웠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중시해야 할 그런 부분에 침묵하면서 전한 복음은 소위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반쪽 복음은 정의, 평등, 인권, 평화를 추구한 사회적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결합했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교회가 성도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민주화 운동이나 산업선교를 불순 세력 또는 용공운동으로 매도했습니다.³⁴⁾ 처음 반쪽으로 시작한 반(半)복음이 나중에는 복음의 적용 자체를 마귀의 것으로 규정하는 반(反)복음이 되어, 자기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주된 이유도 CCC 회관 부지 제공 등 기독교에 베푼 혜택이었다. 강성호 “유신과 함께 온 그리스도의 계절: 박정희와 김준곤” CAROS 비평루트, 2013년 12월 28일, 2.

29) 1973년 5월 국가조찬기도회 설교. “제 6회 대통령조찬기도회 메시지” <교회연합신보> 1973년 5월 6일.

30) “대담/ CCC 한국 총재 김준곤 목사” 좋은 친구들 블로그, 2020년 5월 20일. 대담은 2006년.

31) Stentzel, 3.

32) Stentzel, 4. Wikipedia, “Bill Bright.” John G. Turner, *Bill Bright and Campus Crusade for Christ: the renewal of evangelicalism in postwar America*.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8, 151-4.

33) “Religion: Tomorrow the World,” *TIME*, January 3, 1977. Stentzel, 4.

34) 이만열,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과거사 청산의 문제” <신학사상> 92 (1996, 봄). 김득항 장로 등이 앞장을 섰다. 윤경로, “분단 70년, 한국 기독교의 권력유착 사례와 그 성격” 2015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사학회 정기 학술 심포지엄, 50. 김준곤도 반공 기도회에서 진보 신학과 운동을 용공으로 비판하였다. 강성호, 6.

김준곤의 생전과 사후에 발간된 김준곤 설교집에는 시월유신 찬양 부분이 삭제되거나 새마을운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³⁵⁾ 지난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는 역사를 왜곡해 사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 은닉과 왜곡 작업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예쁘게 꾸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마 23:29-31; 눅 11:47-48). 그리고 과거사를 그런 식으로 아무리 미화해도 과거의 그 잘못이 왜곡한 수십 년 교회는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김준곤의 활동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전도라는 고상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재자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복음과 우상의 혼합으로서, 여기서 우상은 복합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은데 달리 보면 그게 하나님 대신 권력 앞에 무릎꿇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몸의 등불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 6:22-23; 약 4:8). 그런 방식으로 수행한 전도와 훈련,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독재라는 불의를 침묵으로 또는 공공연히 용인하고 지지한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도 그 틀을 깨고 온전한 복음을 구현한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제한된 복음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었고 그 복음은 재물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교회, 이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교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³⁶⁾

권력과 교회가 가깝던 그 시대에 권력자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고 저항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독재와 폭정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비복음적 행동이라 믿었기에 고난을 감수하였고 그 결과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 이가 많았습니다.³⁷⁾ 이들은 사회 활동을 구원과 혼동했다기보다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은 사회의 부조리까지 바꾸는 것이 옳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결탁한 이들과 비교하면 숫자 면에서는 많이 뒤질지 몰라도, 적어도 반쪽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한 노력이었으니 가치는 큼니다. 삶의 실천을 외면한 반쪽 복음을 들은 다수와 바른 실천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된 소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여기서 토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혁자 칼뱅의 한 마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수의 많음이 아닌 순결함에 있다.”³⁸⁾

성경에는 세속 권력 앞에 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둘 나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힘을 이용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세웠지만 이들은 권력에 맞설 일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열정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느 1:5-7). 또 하나는 바빌로니아에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는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35) 임안섭 “삭제된 김준곤 목사의 ‘유신 찬양 설교’” 뉴스앤조이, 2012년 10월 18일.

36) 권력과 기독교의 결탁에 대한 타종교의 비판 문제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다. 조선신학교 적산 불하 문제는 윤경로, 31-32. 또 이병두, “박정희 정권과 개신교의 정경유착” 법보신문, 2021년 8월 30일.

37) 진 매튜스를 비롯한 월요모임 회원들이 주도했다. 짐 스텐슬 편집, 최명희 옮김, <시대를 지킨 양심: 한국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나선 월요모임 선교사들의 이야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시대를 지킨 푸른 눈의 양심들, 월요모임” 오픈아카이브.

38) “The excellence of the church does not consist in multitude but in purity.” 이사야 4:2 주석. John Calvin, Tr. William Pringle,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cel.org.

믿음을 지켰습니다(단 3:1-18). 약간의 타협으로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발전시킬 기회를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런 방법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수천 년 전의 성경 사건과 일대일로 비길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느 이야기의 어느 부분과 통하는지는 한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3) 국가조찬기도회

박정희 시대에 복음은, 권력과 함께 돈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일은 조용기가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됩니다만 의미심장한 출발점은 김준곤이 1966년 3월에 시작한 국가조찬기도회였습니다.³⁹⁾ 국가조찬기도회는 CCC 홈페이지에도 자기 역사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념을 보면 국가조찬기도회는 모임이 아니라 조직을 갖춘 단체입니다. 또 기도만 하지도 않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벌입니다.⁴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실천과 함께 가야하고, 조찬기도회의 설립 취지문도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은 정치 종교의 유착 가능성과 권력을 우상으로 숭배할 가능성을 풍성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 본인은 첫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며, 남을 도와주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관(顯官,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호화롭게 기도회를 갖는 것은 아무래도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⁴¹⁾ 권력자의 눈에 기독교가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렇지만 박정희도 2회부터는 참석하여 조찬기도회를 자신의 “정견 발표장”으로 만들었고, 언론은 그 기도회가 “종교인들의 충성 서약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⁴²⁾

박정희의 첫 조찬기도회 불참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는 박정희의 다른 말도 전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정치인들이 이처럼 종교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면 교가 타락하고 정치도 망하는 것이다.”⁴³⁾ 예리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본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1974년의 국가조찬기도회에는 닉슨 대통령 사절 존 니택커가 함께 온 7명을 데리고 참석했는데 박정희의 경호실장 박종규가 골프장에서 니택커에게 현금 만 달러가 든 봉투를 은밀히 전달했습니다.⁴⁴⁾ 그런데 니택커는 그 뇌물을 봉투째 미 대사관에 전달했고 미 당국이 그걸 계기로 반부패 조사를 벌였습니다. 1978년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박동선이 미 의원 30명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시인하면서 이 사건은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었고, 이 사건이 코리아게이트로 알려지면서 대외적으로 ‘어글리 코리아’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습니다.⁴⁵⁾

39) 김준곤, “민족복음화 연표”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순출판사, 2005), 579-580. 한 해 앞인 1965년에는 국회조찬기도회가 있었다.

40)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홈페이지.

41)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서” 경향신문 1966년 3월 12일자.

42) 배문규, “국가조찬기도회, ‘나라 걱정’ 혹은 ‘정치 선전’의 장” 경향신문, 2016년 2월 25일. 권력과 손잡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 사람도 있었다. 윤경로, 53.

43) 김종목, “무릎기도 ‘통제불능’?” <주간경향>, 2011년 3월 17일. 경향신문, 1966년 3월 12일자 인용.

44) “Civiletti Sees an End to Korea Bribe Cases,” *The New York Times*, June 2, 1978.

국가조찬기도회는 내로라하는 교회 지도자가 성경적 가치를 위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1980년 8월 6일에는 전두환 국보위원장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정진경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비겨 축복했습니다. 전두환 눈에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요? 그해 9월 30일에는 전두환 당선 축하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14년에는 김삼환 목사가 박근혜를 고레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송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사단법인이 되던 2003년까지 한국기독실업인회CBMC가 준비와 실행을 도왔습니다.⁴⁶⁾ 기도회 자체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을 연결하는 자리이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조찬기도회 임원은 거의 CBMC 회원이었습니다. 한국 CBMC는 1967년에 출범해 1973년에 제 1차 전국 대회를 가졌습니다.⁴⁷⁾ 당연히 이 단체를 통해 수많은 기업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권력과 돈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단체는 조찬기도회보다는 덜 부각됐지만 김인득 장로가 아들이 박정희의 조카사위⁴⁸⁾가 된 이후 기독실업인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자연스레 정교유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정희와 김준곤의 밀월에 필요했던 전군신자화 사업이나 초대형 집회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기독실업인회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노사갈등이 일어나자 산업선교에 대항하는 여러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⁴⁹⁾ 기독실업인회의 활동은 미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인득 회장이 직접 1973, 1975, 1976 세 차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계에서 박정희를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⁵⁰⁾

오랜 기간 국가조찬기도회의 중심인물이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는 작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탄핵 이후 과거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단장을 도우려 했다는 의심을 특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단장을 위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며 그게 무슨 잘못이나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교회 안팎의 많은 분이 사단장 같은 권력자를 돕기 전에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과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의 하나 권력층과 손잡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일이라면 교회와 복음에 또 한 번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김장환은 박정희, 전두환을 옹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안수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심장부와 가까웠던 만큼 권력의 우상화 문제를 논할 때 자세히 연구하고 다루어야 할 인물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이봉관 장로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부인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뇌물로 주었다가 돌려받은 혐의인데, 만사위 인사 청탁을 위해 1억 이상의 귀금속을 바쳤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⁵¹⁾ 만사위는 즉시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

45) "John E. Nidecker, 75, Ex-presidential Aide" *The New York Times*, June 23, 1988, Nidecker's obituary. Washington Post도 같은 내용을 보도. 스캔들은 1976년 워싱턴 포스트에 처음 보도됨.

46) 장헌일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의 영적 자산" 시사TIMES, 2022년 11월 24일.

47) CBMC 70년, 43쪽.

48) 김인득의 차남이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딸과 결혼했다. 박상희의 만사위가 김종필이다. 윤경로, 59.

49) 윤경로, 59-60.

50) 김인득 <내 집을 채우라> (흥성사, 1989), 90-100. 윤경로, 60.

51) 2022년 조찬기도회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는데 이봉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신이 김건희씨

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봉관은 건설회사 사장으로 2020년 11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은 이후 회사가 고속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시공 능력이 2011년 이후 10년 동안 30-40위를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성장해 지금은 16위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로 보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조찬기도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정경유착과 비리에 연루된 것은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됩니다.⁵²⁾ 특히 권력 숭배가 재물 숭배, 이념 숭배와 결합한 이 시점에 강력한 한 방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재물 우상

재물 우상은 역사가 깊습니다. 권력과 결합한 경우가 많지만 재물 우상은 독자적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 부부의 타락도,⁵³⁾ 이스라엘의 반역도, 주님의 거둬진 경고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오류도, 다 재물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교회사 140년의 우상숭배도 사실 이 재물 숭배가 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⁵⁴⁾ 재물 숭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출발점으로 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한국교회의 재물 숭배는 조용기 목사를 빼고 논하기 어렵습니다. 조용기는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분입니다. 그 자체를 업적이라 하긴 어렵지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은 사람은 분명히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분의 훌륭한 업적 외에 너무나 큰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용기는 하나님과 경쟁하던 돈을 하나님과 이어준 주역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도록 창조하신 인간을 서로 갈라져 싸우게 만든 주범이 돈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하는데도, 그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켜, 성도들이 마음껏 추구하고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그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듭 우상에 빠져 들었습니다. 조용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할 사명을 뒤집어 오히려 사람들을 바알에게 인도한 주역입니다.

재물 숭배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바알 숭배에 빠져든 것은 그들의 삶이 풍요의 신 바알이 명령하는 원리를 따랐다는 뜻입니다. 같은 재물을 두고서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지 못하고 바알이 주셨다 한 이유는 여호와가 주신 재물이라면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밝혔다. 임병도, “서회건설회장 요청해 김건희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 임원진 면면 살펴보니” 오마이뉴스, 2025년 8월 19일.

52)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같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금거북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금품을 주고 공직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3) 이세령, <바닥을 기는 창세기> (깃드는숲, 2024), 85-88.

54) 재물 숭배의 성경적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필자의 책 <변영복음의 속임수> (SFC, 2019)를 참고하라.

없고 서로 나누어야 하는 반면, 바알이 주는 재물은 얼마든지 축적하고, 자신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실제 삶에서는 재물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당장 제사를 그만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 부르시면서,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사 1:10-17).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사 1:17).

재물 숭배는 이미 살펴본 권력 숭배에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 권력의 또 다른 형태인 재물을 향한 숭배로 나타납니다. 1970년대 교회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권력과 함께 재물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 숭배는 재물이라는 궁극적 대상을 얻고 누리기 위해 성경적 원리 대신 재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 편법, 불의, 부당, 거짓, 폭력, 차별 등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70년 4월 와우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권력과 돈이 손을 잡고 불법, 편법, 뇌물, 거짓, 억압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짓밟힌 데 대한 항거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느끼고 동참한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는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런 활동을 오히려 마귀와 연결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박정희는 1971년 위수령을 발동했고, 1972년에는 유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를 구약 시대 교회였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권력과 재물의 결합, 그리고 권력과 재물을 숭배하는 일에 적지 않은 교인이 앞장을 섰고, 그 시대의 적지 않은 목사가 강단에서 안정, 발전, 반공 등등을 이유로 강압적인 정치와 부당한 억압과 부당한 불균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권력을 받들고 이념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가 재물 숭배를 중심으로 구현된 셈입니다. 세상은 원래 권력과 돈을 섬기게 되어 있지만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뿐 아니라 앞장을 섰다는 점은 우리 교회사에 큰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의 외침에서 우리는 반쪽 복음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행위는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말기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회고하는 한국교회 140년과 닮아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종교 행위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외면하는 오늘 우리가 바로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사 1:10).

1) 여러 사례

한국교회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사실은 목사, 장로 등 교계 지도자들의 도덕적 부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직접 관련된 것도 담임목사의 과도한 보수, 재정 유용, 지나친 전별금, 그로 인한 교회 분쟁 등 수없이 많지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테카메론>을 수십 권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니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현상 대신, 한국교회,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하고, 돈 가진 자들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첫 사례는 2003년 있었던 주 5일 근무제 반대입니다. 한국 정부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토요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려 하자 전국 5개 경제단체, 그러니까 기업주들의 모임이 대대적으로 반대했고, 보수 언론들도 이들을 위해 부지런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는다, 한 마디로,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도 이런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종윤 목사가 대표 역할을 맡았는데, 십계명 위반이라는 논리에는 성경해석의 무지가 담겼고, 주일 성수에 대한 우려가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면, 가장 부끄러운 것은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었는데 경제 전문가도 아닌 교회는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교회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를 학수고대하는 성도가 다수였음에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기업주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 와 대변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교회가 부자들과 수구 언론 편에 섰으니 부자를 우대하지 말라는 성경과 정반대로 행동한 셈입니다(약 1:1-9). 한 교계 언론은 한기총의 이런 반대를 “인권 유린적 논리”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⁵⁵⁾ 소위 교계 지도자들이 주로 상대하는 대상이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들 자신이 이미 가진 자였기 때문이지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2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썩썩 잘 돌아갑니다. 세상 기업인들이야 입만 썩 닦으면 그만이지만, 경제 망한다 떠들던 목사들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도 사실은 권력과 재물을 섬긴 한 열매일 것입니다.

개역개정 사용: 한국교회는 2000년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써오던 개역한글판 대신 개역개정 번역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출간 때부터 미완성임을 자타가 공인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에서는 신학교 교수회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성경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일단 최선의 번역이어야 하고 적어도 수십 년은 사용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번역이 자주 바뀌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고 적용하고 찬송가에 활용하는 일까지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완결되지도 않은 번역을 정치 목사들을 이용해 밀어붙여 채택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소위 판권이지요. 개역한글판은 제가 태어나던 1961년 발간되어 2012년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개역판을 그대로 씁니다만, 교회에서는 부득이 개역개정을 씁니다. 설교할 때나 책에서 인용할 때마다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개 자가 두 개 들어간 성경이라고 욕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번역을, 그것마저도 수정 중인 ‘누더기 성경’을, 판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들이민 대한성서공회는 돈을 섬기는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은 단체를 유지하는 일 외에 당연히 좋은 일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책임진 공식 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55) 노승현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크리스천 투데이> 2001년 8월 22일.

널리 편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의하게 번역해 교회에 들이밀고 궁극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추락시킨 일은, 누가 보아도 자기모순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권 좀 알아가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본 뜻을 최대한 잘 전달하는 그런 번역을 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돈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가 조성한 말씀의 혼란상은 하나님 대신 권력과 돈을 섬겨 온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혼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⁵⁶⁾

목회자 납세 반대: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목회자 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 월급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거액의 전별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았지요. 그러던 것이 이제 목사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려해 주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부가 목회자 납세 제도를 준비하던 십여 년 기간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논리는 참 다양했습니다. 목사는 성직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종교개혁을 취소하는 듯한 논리도 나왔고, 교인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현금해 목사가 사례를 받으므로 이중과세라 주장하는 억지 주장도 있었고, 심지어 정부가 종교탄압을 시도한다는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납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⁵⁷⁾ 대신 교회의 80%가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기총이 세금을 내야 할 20%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세금 부담이 큰 대형 교회, 부자 목사들을 대변했다는 이야기지요. 게다가 한기총의 주장에는 강제하지 않아도 마치 세금을 낼 듯한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납부가 그렇게 좋다면 일반 국민의 납세도 자발적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신학자의 지적대로 납세 거부하는 무임승차요 돈에 대한 욕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⁵⁸⁾ 한국교회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장기간 이어진 목회자 납세 반대 운동을 통해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세간이 깊이 남겼습니다. 목회자 납세가 안착한 지금 과거 다양한 거부 논리를 펴던 분들 특히 정부의 음모론을 내세우던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 사과도 해명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옹호: 한국교회는 자본주의를 좋아합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사유재산 보호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경계표에 대한 명령은 사유 재산 보호 이전에 부당한 비축과 독점을 막는 원리입니다(신 19:14; 27:17; 잠 22:28; 호 5:10). 특히 고아와 과부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잠 15:25; 23:10).⁵⁹⁾ 세상 원리에 따라 재물을 비축한 사람이 성경 좀 읽었다고 한 구절 가져 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런 왜곡이 교회에 흔하니 그것도 우리의 현주소겠지요.

56) 성경과 합본으로 팔리는 찬송가도 돈에 좌우되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57) “‘종교인 세금은 자발적으로...’ 한기총, 입법화 반대” 연합뉴스, 2015년 12월 2일.

58) 김상득, “목회자 세금 납부 거부할 이유 없다” 뉴스앤조이, 2006년 2월 25일.

59)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잠 15:25는 과부를 보호하시는 말씀으로, 잠 23:10은 고아를 보호하시는 말씀으로 주신다. 개역개정본 같은 낱말을 경계표, 지계석 등으로 다르게 옮겨 혼란을 부른다.

교회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태도의 뒷면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나쁘니 공산주의의 반대인 자본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역시 유물론이라는 점을 한국교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은 물질이 정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만 경제에 적용하면 돈이 최고라는 원리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돈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해 함께 행복하자 하는 비현실적 이론이고, 자본주의는 갖든 못 갖든 능력에 맡기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몰라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잘 활용해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돈 자체가 힘이고 가질수록 더 가지기 쉽기 때문에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려고 누진세,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사용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재물 숭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계표 명령을 사유 재산 보호에 이용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성경에 무지할 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과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에도 둔감합니다. 근본 이유는 온전한 복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 경제 등을 무수히 말하고 강조하지만, 그럴 때마다 영적인 의미로 슬쩍 돌려치고 넘어갑니다. 게다가 소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는 번영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약점인 빈익빈부익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구분되고, 부자 목사와 가난한 목사가 공존하며, 재분배 기능이 없는 은급제도를 운영하는 총회가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 형편에 부자 교회는 가난한 교회를 후원하면서 그런 도움을 정치 권력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물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힘ियो, 진리요, 안전보장이라 외치는 돈, 나를 많이 가지고 나를 최대한의 지하라는 돈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 얻어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부담이 없는 것이 재물신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가문에 따라, 직업에 따라, 능력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있을 것이고, 보유 재산에도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전부 교회에 갖다 바치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이라기보다 이상에 가깝겠지만, 여유가 있는 자들이 모자라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원리는 교회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성행하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집단이 되어, 경제적 평등과 고른 분배를 시도하는 일을 오히려 빨갱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오히려 더 복음에 가까운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게 정말 복음 맞습니까?

교회의 계급차별: 교회가 돈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교회 내, 특히 부자들에게 깊이 뿌리박힌 계급의식입니다. 한 마디로 부자인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은 악하다는 차별의식입니다. 마르쿠스가 돈의 유무로 사람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구분했다면 교회의 부자들은 돈의 유무를 근거로 영적인 신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조직과 사회 일반을 대하는 태도에는 영적인 계급의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이 드러납니다.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부패한 인간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이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배급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은커녕 유지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주도 이와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부패한 인간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돈은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기업주들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선은 정부의 개입이고 그 다음은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의 자기 보호 제도입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처우와 임금을 챙기고, 작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복지를 간섭하지 않으면, 기업주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주 가운데 상당 수가 자유를 외치며 정부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와 연결해 나쁜 것이라 합니다. 그런 시각에는 나는 의롭다는 반성경적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더 심하게 본다면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제도가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모르겠거니와 성도라면 그런 자기의 또는 탐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SPC에서 노동자가 거듭 죽어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유달리 사망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니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자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이윤이 줄어듭니다. 주주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요. 물론 안전에 과도하게 치중하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선인가 따져야겠지만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이 매년 죽어 나간다면 기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산재는 경제부흥 초기부터 막았어야 하는 일인데 놀랍게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⁶⁰⁾ 그런데 교회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보듬기보다 기업주 편을 들어줍니다. 안전 위주의 법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기업주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무슨 전체주의 사회가 된 듯 호들갑을 떨니다. 우리의 재물 승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적 가치를 수행하는 일을 오히려 마귀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지경입니다. 교회는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없는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할 교회가 기업주 편을 들고 자본가들 편을 드는 현상은 과거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역사의 연장입니다. 재물이 권력과 결합하면서 권력과 재물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승배는 자연스레 이념 승배와 이어지게 됩니다.

대형교회의 주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몇몇 대형 교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교회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을 이용해 지교회를 개설해 영향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주도하려 합니다. 약한 교회는 더 약해지고 강한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시고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시는 주님의 섭리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원리의 기독교적 적용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마 13:12; 25:29).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강하다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사람이 많고 재정이 든든한 교회에 사람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주님은 돈의 힘을 얼마든지 사용하시겠지만, 돈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만 단위의 교세를 가진 교회는 거기 걸맞은 거대한 돈으로

60) 2023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인 캐나다는 0.5명, 3위인 미국은 0.37명, 4위 프랑스는 0.35명이다. 특히 재해가 많은 건설 부문에서는 한국이 1만 명당 1.59명으로 독보적 1위이고, 그 뒤 캐나다 1.08명, 프랑스가 0.97명, 미국이 0.96명이다.

교계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와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자 자기가 속한 교파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지만 교회가 연합해 하는 여러 일에 미치는 영향도 큼니다. 그런 교회에는 힘 있는 정치인도 많고, 행정부나 관가의 고위직도 많고, 거대 기업의 소유주도 많고, 국가조찬기도회 회원도 많습니다.

권력과 돈이 교회에서 만나 자본주의를 찬양하며 한바탕 춤을 춥니다. 그런 춤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있었던 옷로비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세상 권력 문제로, 돈을 매개로 추잡한 싸움을 벌여 교회의 실상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특별검사가 1년 동안 파고들어 겨우 앙드레 김의 본명 하나 밝혀냈다고 하니 자세한 내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는, 그 사건으로 가장 손해를 본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기자의 말은 삼십 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우리 머릿속을 맴돕니다.

라. 이념 이상

권력과 돈을 섬겨 온 그 역사의 연장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특정한 이념을 또 이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극우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오늘의 극우 사상은 한국교회 14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온 반공주의 사상의 한 형태로서, 권력 숭배, 재물 숭배와 연속성을 갖습니다.

교회의 이념 숭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쓴 제 글이 다루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정치에 빠진 교회〉인데 실제로는 극우 사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교회를 진단해 본 책입니다. 저와 같이 고신 총회에 속한 사역자 여섯 명이 같은 마음을 쓴 글을 모았고, 제가 쓴 글은 “교회의 정치 참여와 설교자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극우 사상은 진보 이념에 대한 반발이 특징입니다. 이 진보 이념은 포스트모더니즘 상대주의에 나타난 그대로 주류의 횡포를 제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약자를 배려하자는 정신입니다. 지난 2, 30년 그런 흐름이 이어지나 싶더니, 최근 몇 년 그런 추세에 대한 반발이 강해졌습니다. 극우 사상은 이때를 틈타 주도권을 노립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말고 주류가 힘을 잡아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다수에게 자기 힘을 깨달으라 촉구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속삭임에 넘어간 이들은 자기가 속한 특정 정부나 종교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다른 인종, 정권, 종교를 정복해 지배하려 합니다.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인종차별, 소수자 배척 등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와 다른 집단은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폭력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극우 사상은 지난 몇 해 동안 세계적으로 확산했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몇 있습니다. 첫째 외세를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선별적으로 선호한다는 점, 둘째 교회가 극우의 선봉장이 되어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극우는 대체로 민족주의와 통하는데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로 외세의 도움으로 권력과 부를 누린 이들이 아직도 나라의 여러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을 숭배하던 전통이 오늘날 극우 이념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극우의 본산인 교회는 기독교가 우세한 미국을 선호하고 공산

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을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극우 사상을 배양하고, 보존하고, 물려주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념 숭배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념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그 이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우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가리키면서 또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채택하고 순종해야 할 실천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저주고 희생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적지 않은 교회가 십자가와 반대인 정복, 승리, 지배 등의 성향을 이 십자가 복음과 뒤섞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정치권력과 결탁하면서 반공주의를 많이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를 피로 물들인 십자군이 우리 시대에 다시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사례

우리 시대의 극우 사상은 디지털 주도의 시대상과 맞물려 새로운 영지주의적 특성을 보입니다.⁶¹⁾ 과거 영지주의자들이 남모르는 비밀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 주장한 것처럼, 이들도 남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독특한 내용을 진실이라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그 비밀을 몰랐다가 아는 것을 두고 계몽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계몽은 과거 영지주의자들의 구원과 통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얻은 것들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그 정보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합니다.

위기의 시대: 영지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주장이 우리 시대 위기론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고, 언론까지 주도하여 나라를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과 맞선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나라가 안 망한다고 외칩니다. 과거의 반공주의와 연결된 태도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현실을 보는 눈이 다수 국민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막는다면 법원에 난입해 직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⁶²⁾ 동조하는 이들은 그런 폭력을 잘한 일로 칭찬하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극우 이념이 이미 종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다수 국민의 지지 아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도 이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주장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로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사실 근거도 밝히지 못한 채, 마치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지식을 자신들만 가진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열심히 따라가며 익힌 그런 극우 사상을 마치 복음에 준하는 어떤 것인 양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와 관점을 심어준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런 주장을 복음과 동등한 수준으로 외침으로써 절대적이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히려 그런 상대적이고 때로는 거짓되기도 한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61) 필자의 글 “디지털 영지주의” 기윤실 웹진 <좋은나무>를 참고하라.

62) 2025년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 위기론과 함께 제기되는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2020년의 21대 선거부터 부정이었다는 주장이 범야권이 190석을 얻은 2024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산됐습니다. 부정선거의 근거로 내세운 여러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목 조목 설명했고, 선거와 관련된 수백 건의 소송도 전부 기각으로 끝이 났지만, 부정선거 신봉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조계가 다 썩어 빠졌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음모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수 언론조차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보수 멸망을 부르는 전염병이다, 하고 비판합니다.⁶³⁾ 그랬더니 이들은 언론도 한통속이라며 귀를 막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은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해 이 음모론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뒤 오보라며 사과문을 냈지만,⁶⁴⁾ 그 오보를 믿고 증폭해 확산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에 함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모스 탄이라는 재미교포가 한국에 들어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고, 대접하고, 강의를 주선하고, 보호해 준 것이 교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모스 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성도들은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우의 광기는 마치 마법에 들린 듯한 증세를 보입니다. 그게 신앙과 합쳐지니 귀신이 들린 셈이지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하는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굳센 믿음이고 간절한 소망이었겠지만 거기 사랑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반공주의의 계승: 한국의 극우는 일반 사회나 정치계보다 종교계 특히 기독교에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보수주의와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보수 성향의 적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속아 극우적 반공주의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주도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립 세력인 중국을 북한 못지않은 위협 세력으로 강조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뒤섞인 복잡한 국제 관계를 불확실한 이념 하나를 기준으로 간단히 재단해 버립니다. 반공주의는 자신들이 은밀하게 믿는 체제전쟁과 연결하여 반대 세력을 향한 폭력도 용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때로는 민주주의가 꼭 최선은 아니라고 보는 이중성을 갖습니다.⁶⁵⁾ 전체주의를 막겠다며 전체주의 방법을 쓰는 셈이지요.

교회 안의 극우세력은 자신들이 기독교적 가치라 믿는 것들을 비종교적 방법으로, 다시 말해 정치나 교육, 심지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복음에 맞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두려움이 동반되는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집단 시위를 통해 확산하려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

63) 2025년 6월 15일 조선일보, 2025년 6월 29일 중앙일보.

64) 스카이 데일리 사고, “간첩단 보도 사과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2025년 8월 13일. 무책임한 오보 하나가 온 나라에 끼친 엄청난 손실을 어찌 이런 사과문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까.

65) 박송이 “실체 드러난 극우세력,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2025년 3월 1일.

다. 미국처럼 기독교인이 과반수인 나라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기독교인이 이제 20퍼센트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기독교적 원칙을 전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과 반성경적 승리주의를 뒤섞는 오류일 뿐입니다. 민족과 교회를 혼동한 기독교 건국론이나 성시화 운동 등이 뿌린 씨가 이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전도도 힘겹고 사회봉사도 어렵습니다.

비성경적 방식: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윤리 면에서 대체로 보수적 관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낙태 등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사회의 기류가 호의적이지 않을 때 그 관점을 확산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합니다. 그럴 때 성 윤리나 태아의 생명에 대해 홍보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일거에 그 가치관을 입법화하고 실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극우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성경적 실천 또는 투쟁 방식을 부추깁니다. 상대적 목표가 절대화되면서, 절대적인 원칙과 방법이 상대화되고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방법도 채택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전한 가치마저 극우의 함정에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불신자들도 성경적 원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곧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설교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원리인데, 성도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원리대로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성경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민주 사회다 보니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뜻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일까요? 때로 낙태는 살인이요 죄라는 외침이 크게 들려옵니다.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으로는 좋은데, 불신자들의 공감과 표를 얻기에도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집회에 가서 무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의 공감과 표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상의 법은 성경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쪽도 절대성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인 정치 현장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목숨을 건다면 그게 바로 극우 사상이고 나쁜 의미의 종교적 근본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만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회복을 위하여

1) 우상숭배와 회개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인간의 섬김을 받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은 한 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고전 8:4; 사 41:24; 행 14:15).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는 위험합니다. 우상처럼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새긴 조각에 비기는데 조각은 눈, 귀, 입 등 기관 모양을 가졌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 우상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시 115:4-8; 135:15-18; 사 44:9-17; 렘 10:1-5).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섬기는 일이며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전한 판단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렇게 다릅니다(엡 5:18). 하나님이 아닌 대상은 전부 피

조물인데 우상숭배는 그런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일이니 이미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 우상을 절대화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그 관점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런 원리에 굴복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따라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인간의 마음 곧 탐욕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통해 안전과 쾌락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멋지게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규정합니다(엡 5:6; 골 3:5). 그러면서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고전 6:9-10; 갈 5:20-21; 계 21:8; 22:15 등). 특히 명확한 말씀이 에베소서 5:5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엡 5:5)

우리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이런 종류의 경고를 가버이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말씀 말씀 노래를 부르면서도 특히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예수 믿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상에 마음 조금 뺏겼다고 설마 지옥에 가겠나, 하는 식의 무분별한 낙관론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런 가능성을 미리 보았는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또 경고합니다(엡5:6). 신약성경에는 속지 말라는 경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거짓말이 믿음만 좋으면 순종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는 거짓말입니다(고전 15:33; 갈 6:7; 골 2:4; 약 1:16; 요 일 3:7). 주님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시는데 거짓말의 핵심은 고백과 행동의 불일치였습니다(마 7:15-21).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고, 우상숭배의 죄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도 다수가 우상숭배의 죄로 주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놀라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꾸중을 들은 다섯 교회에 주시는 명령은 오직 하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계 2:5, 16, 21-22; 3:3, 19).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회개도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살피고 (지성), 자기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감정), 바른 행위로 돌아가는 행동(의지)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 반응과 심리적 결심에만 집중하고 그것의 외적 표현인 행동, 곧 성경이 회개의 열매라 부르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제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갈 2:20). 그런데 그리스도께 내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도 함께 드려야 하고, 따라서 내 삶 전체가 이 믿음의 통제를 받는 소위 온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에 보편적으로 구현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2) 온전한 복음

세례 요한은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순종하라 했습니다. 세리에게는 부당 과세를 하지 말라 하였고 군인들에게는 폭력과 거짓을 쓰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눅 3:12-14). 그리고 모든 이에게 가난한 이들과 삶을 나누라고 명령하면서 그것이 회개에 걸맞은 열매라 했습니다(눅 3:8-11). 주님도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주님이 언급한 회개의 열매에는 회당 출석이나 율법 공부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가르쳐 복음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게 전도한 다음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에는 으레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교회에 출석하라,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라, 전도하여 대를 이으라 등의 소위 종교적 영역의 실천만 권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또 자비롭게 사는 일들도 원칙으로는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인지, 올바른 것인지, 자비로운 것인지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조 문제는 아예 외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언제나 소시민적인 영역에서 심리적 만족을 주는 정도로 그칠 뿐 우리가 몸담은 세상을 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실천하는 단계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면 온전한 복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애초에 자라지 못합니다(엡 4:13; 뱀후 3:18).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풍요의 속임수”⁶⁶⁾에 기운이 막혀, 즉 말씀이 질식되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마 13:22). 가시밭에서 자란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습니다. 차라리 말라 죽었다면 속지는 않았겠지요.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이념이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유념해 볼 구절은 누가복음 8:14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열매가 무르익다”는 독특한 동사를 쓰십니다. 신약 이곳에만 나오는 이 말은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익지는 못한다, 즉 다 자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겨도 열매가 맺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한 복음, 특히 대량으로 선포된 복음은 권력, 재물, 이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게 굴복하는 한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불의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한 전도는 그 불의를 지적할 수 없고 그런 한계 속에서 결국은 실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정치, 경제의 여러 문제에 침묵하거나,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논리에 순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는 셈이지요. 권력에 숙이고 전한 복음이니 그 권력을 비판하거나 대항하는 대신 성경 보고 기도하며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는 등 종교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66) 개역개정에는 ‘재물의 유혹’이라 번역했는데 ‘재물의 속임수’다. ‘재물’은 풍요, 번영 등의 뜻도 갖는다. ‘속임수’의 원어는 아파테인데, 골 2:8; 살후 2:10에서만 ‘속임수’로 옮겼다. 막 4:19; 엡 4:22; 히 3:13 등 나머지도 다 ‘속임수’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들에서 자란 기독교는 애초부터 사회에 등을 돌리는 계도의 성향을 내재적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로잔 2024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로잔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함께 힘쓰기 위해 처음 모인 이후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추어 왔습니다.⁶⁷⁾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로잔은 WCC와 관련된 운동으로 전도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각종 불건전 요소와 뒤섞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⁶⁸⁾ 그런 기류 때문이었을까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열린 한국대회는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애초에 배제해 버렸습니다.⁶⁹⁾ 대회 직전 사전대회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팅이 열렸지만 로잔과 무관한 4개 단체가 주관한 행사를 로잔과 엮었을 뿐입니다.⁷⁰⁾ 발표된 선언문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인권과 전도에 집중하는 제한된 원론으로 그칩니다. 반공주의가 낡은 양극의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 거지요. 선언문이 발표되자 동성에 하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기후변화, 경제 불평등 등 핵심 이슈를 다루지 못한 점은 아예 관심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뒷전으로 한 채 여전히 이념에 갇힌 교회의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3) 이론의 한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던 2017년의 칭의론 논쟁은 한국교회사 140년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당시 이신칭의 교리의 참뜻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주로 바울 새관점이 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논쟁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정반대 개념이지만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같은 것이 되는데 우리의 논쟁에서는 믿는 이들의 삶이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불신과 신앙이 맞닿은 그 첫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신칭의를 관념적으로 푸는 태도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⁷¹⁾ 어떤 신학자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말씀도, 사실은 “가서 해봐라, 안 될 거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니다. 주님을 믿으면 순종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지요? 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주님 말씀까지 거꾸로 푸는 지경에 이른 셈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도 행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애써 외면합니다(약 2:17). 사실 그런 이유로 루터도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했으니, 한국교회는 지금 루터보다 더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셈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거둬 나누고 심지어 대립시키는 이런 태도는 삶을 배제하는 것이 복음인 양 배워온 한국 교회사의 최종 결론입니다. 한경직도 인권 유린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김준곤도 박정희의

67)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974년 발표된 로잔 언약 제 5항이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68) 김준곤도 로잔 언약을 언급하지만 전도만 중시하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전도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한다. “대답: CCC 한국 총재 김준곤 목사” 좋은친구들 블로그.

69) 분단과 평화는 제 4차 로잔대회의 큰 주제 7가지와 세부 주제 25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70) 천수연 “로잔대회 앞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팅’ 열린다” CBS 노컷뉴스, 2024년 8월 21일.

71)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글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를 참조하라.

독재가 가져온 온갖 폐해를 오히려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운 교수는 CCC의 사영리 전도가 한국교회의 왜곡된 칭의론을 심었다고 분석합니다.⁷²⁾ 예수와 인격적 만남이나 스스로 믿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에만 머물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듭 경고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론에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실천으로 입증되지 않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나무와 열매 비유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곧이어 말씀으로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을 뜻하는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혹 주님께 와도 호통을 치며 내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마 7:22-23). 그걸로도 모자라 주님은 ‘그러므로’ 하시면서(마 7:24) 집 짓는 자 비유를 통해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닥쳐도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주의 말씀 듣고서”⁷³⁾라는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찬송가 가사에 우리가 가진 신학적 오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후렴구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집의 기초를 반석과 모래로 구분하신 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구주로 불렀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순종하는 것이 곧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라 해 놓고 후렴에 가서는 만세반석 곧 주님 위에 집을 잘 짓자 하여 처음 믿는 단계로 돌아가 버림으로써 기초를 반석과 모래로 구분하신 주님의 의도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물론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겠지요. 바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시므로 그 바위를 주님과 비겨 버리면 순종의 중요성이 사라져 버리고 다시금 바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반석을 주님과 연결하는 것은 신학적 순환 논리에 빠지는 일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면 안 되고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72) 김태완 “교회개혁, 빼놓아진 칭의부터 바르게” 뉴스앤조이, 2011년 11월 9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가을 사경회 강의.

73) 영어 가사에 있던 오류가 번역에 그대로 남았다. “Those Who Hear and Do the Word” 이 가사와 다른 “Have You on the Lord Believed” (제목은 “More to Follow”)는 예수를 믿었으면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실천이 아니냐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천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준비요 훈련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 헌금, 전도 등 소위 종교 생활이 전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모두 실천을 위한 훈련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인 예배 역시 한 주간 순종한 삶으로 감사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새로 주실 한 주간은 제대로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담아야 참 예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일상과 축제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배가 그런 축제가 되지 못한다면 성도는 예배와 삶의 괴리, 신앙과 순종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는 외부와 단절된 고립 집단이 되고 맙니다.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 종교의 형식에만 갇혀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경건은 한국교회에 가득한 제자훈련에도 나타납니다(딤후 3:5).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자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해져 교인이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도 있고, 한국 전체를 휩쓴 훈련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각 교회도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전체 교인도 몇 단계로 나누어 훈련하고, 새 신자는 또 새 신자 훈련을, 다른 교회에서 옮겨 온 교인은 그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밟습니다. 긍정적 요소도 많습니다. 교역자가 아닌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또 훈련하는 리더가 됨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등 신앙의 기초를 훈련하여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게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시행하는 제자훈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훈련으로 과연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훈련의 핵심은 말씀 공부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익히고, 적용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기도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교회 출석, 교회 봉사,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을 순종하는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실천은 없습니다. 아니, 실천은 거의 소위 종교적 영역에, 예배당 건물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순종을 위한 훈련인데 그런 제한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내게 보람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말하자면 종교적 공로가 되는 셈이지요.

직장 관련 훈련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치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모양을 갖습니다. 반대로, 나하고 이념이 다르다 싶으면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세상 경제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돈을 섬겨 온 역사 그대로 부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전달하고 혹 그것을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는 시도는 이념의 칼을 가져와 공격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논하는 제자훈련 보셨습니까? 국회의 재해 예방법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야기합니까?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등을 논의는 둘째 치고 언급이라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민주주의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렵기로 치면 성경과 신학이 훨씬 어렵지요. 삶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손대면 안 된다고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젖만 먹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수준으로는 자라지 못합니다(히 5:13-14). 가장 기본적인 정치와 경제를 언급하지 못하니 그런 원리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이라도 꺼내겠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옥한흠 목사의 교회가 만 명으로 불었다 하니 누가 그립니다. 예수님도 열둘밖에 못 기르셨고, 그 중의 하나는 또 불량품인데,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제자를 만 명이나 만들었을까? 물론 제자가 제자를 기르는 디모데후서 방식으로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딤후 2:2) 그 교회의 후임 선정과 이후의 여러 파동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짓을 일삼고, 권력을 휘두르고, 돈으로 세력을 키워도,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습니다.⁷⁴⁾ 그 교회에서 수십 년 했다는 제자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24의 ‘그러므로’에서 모두가 막힙니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우상을 섬겨 온 교회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권력을 섬겼고, 그와 함께 이데올로기도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권력과 돈과 이데올로기를 종합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종교적 색채만 선명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고도 심오하게 개발, 활용해 왔으니 그런 제한된 자리에서 무슨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겠으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을 어떻게 길러내겠습니까?

삶의 핵심 영역인 사회를 등진 전도요, 정치, 경제, 사회를 배제한 복음이기에 전도를 받아 결신한 이도 신앙이 그 영역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된 이들은 사회적 이슈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을 같은 신앙의 동지 아닌 남으로, 심지어 반 기독교 세력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사회 맥락에서 끊어진 개인 차원의 사랑일 뿐, 내가 속한 학교, 회사, 정치와 경제 등 여러 영역의 구조적 문제나 큰 그림과는 무관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근검절약이나 남는 돈으로 하는 구제에 국한되고 특정 입법이 종업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와 복음은 오늘도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승만이 기독교에게 호의를 베풀었기에 그를 지지한 교회는 오늘도 종교적 형식 하나를 기독교의 특징으로 제한하여 규정합니다. 나만의 종교에 갇힌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기업과 정당에 나타납니다.

한국에 소위 기독교 기업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와 닮았습니다. 기업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기업은 회사에서 성경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뽑거나 기독교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불신자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압력을 넣는 곳도 아닙니다. 사회 봉사와 구제를 하는 것도 기독교 기업의 특징이 아닙니다. 불신 기업들도 그런 일 많이 합니다. 돈을 선교에 쓴다고 기독교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기업은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사회관, 성경적 조직 운영과 성경적 경영 원리가 주도하는 곳입니다. 성경공부나 기도회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 존재 이유, 운영 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기독교 기업입니다. 투명한 운영, 성실한 납세도 한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자유와 평등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기독교

74) 이 점에서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는 한국교회사에서 중요한 뜻을 갖는다. 거짓으로 담임이 된 사람에게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힘든 여정을 이어온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면서 참 회개를 통한 구원을 촉구하는 사랑의 수고로 볼 수 있다.

교 기업은 기독교라는 종교색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그런 종교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기독교적 원리로 운영되고 그 원리를 구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정당도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이용해 기독교의 이익을 꾀하는 압력단체 정도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편다고 하지만 몇 가지 윤리적 이슈로 국한되거나 특정 이념을 성경인 양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정치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는 공의, 정직, 공평, 존중, 자비 등의 보편 가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도한다는 사람들의 인품이나 능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이런 정당을 거둬 만든데 성도들이 더 성숙하여 동조하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4) 새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은 될 수 없지만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말기의 부패상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처음 사랑을 즐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태가 떨어진 상태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감사하게도 과거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기운실처럼 현실을 일깨우는 목소리가 있으니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처럼 사회적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다 하면서 종교적 행위에는 온갖 정성을 쏟지만 정작 그렇게 예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싫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삶을 외면한 채 종교에만 집중하는 이것이, 관념의 쳇바퀴에 갇힌 채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성경이 알려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구호는 권력에 아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념을 숭배한다고 비난받는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호지만 추상적이어서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사실 명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인애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등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각오일 뿐입니다(호 6:1-11).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고, 착취와 독점, 이웃을 향한 억압과 폭력을 중단하는 일이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답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구호도 감동적이지만, 그런 구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공의를 구현하자, 자비를 실천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런 구호를 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호도 물론 원리요 추상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지만 어느 구호 기관에 얼마씩 기부하자,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을 잘 살피자, 재난을 겪은 나라가 있으면 가서 자원봉사를 하자, 이런 구호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일단은 원리적인 구호를 외치되 감상적인 표현은 피하자 한 것입니다.

그런 삶은 반공주의라는 이념의 우상을 속히 타파하고 북한과 평화를 회복하고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공주의와 복음의 어색한 동거를 끝내고 온전한 복음에 기초한 사랑과 포용을 훈련해야 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새로운 전도지가 맞습니다. 이천만 미전도 종족의 존재는 분명 한 국교회에 큰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지켜 온 배타적 사고, 경제에 기반을 둔 우월적 태도를 경계해야 하며, 정복적 선교를 시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겠지만 적어도 침략자의 종교가 아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섬기는 자세를 갖고 준비한다면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행동하는 신앙

끝으로, 한국교회의 140년 우상숭배의 역사를 돌아보며,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온 교회가 함께 나서서 우상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엘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창 35:1-5).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하기 전에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박살냈습니다(삿 6:25-27).

우상은 박살을 내야 합니다.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일 수 없습니다(약 2:14-26). 다소 과격한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도원 운동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세상과 교회가 너무 강하게 밀착했을 때는 그런 과격한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 운동도 좋고, 성명서도 내고, 조직을 만들어 시위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의 우상 숭배를 끝내는 일이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긴 그 대상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돈도, 이념도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썩은 마음을 고쳐야지요.

혹 우리 교회에 국가조찬기도회 회원인 장로, 집사가 있다면 왜 권력을 섬기느냐 따지고 당장 해체하라고 아니면 탈퇴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권력과 결탁한 전도는 왜곡된 신앙을 낳을 뿐임을 설명해 줍시다. 교회 목사가 불의한 권력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며 미화하거나, 돈을 하나님의 복으로 왜곡하는 설교를 한다면 반드시 찾아가 항의합시다. 설교는 아무도 시비하지 못하는 성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책망이 있어야 그들도 삽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자기 보존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안 될 정도라면 엄청난 손상을 입은 거겠지요. 그럴 때는 약도 쓰고 수술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갖는 일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자정 활동이 되겠지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연이은 거짓말로 담임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엄청난 권력을 휘두릅니다. 법을 어기고 세습을 했는데도 돈의 힘으로 아무 탈 없이 대를 이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자랑하던 감리교 삼형제는 하나같이 세습을 해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⁷⁵⁾ 다쳤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병이 나 생체 수치가 위험을 알리는데도 회복은커녕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과연 병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오늘의 고민은 교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승배로 이어진 140년 역사와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재 모습을 보며 5백 년 전 시작한 목사와 장로 중심의 개혁교회가 과연 더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을 보며 500년 전 하나님이 인쇄 문화를 사용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목사 아닌 사람들 곧 평신도 운동이 생길 수 있겠고, 썩어 들어간 대형 교회를 대신하는 소그룹 운동일 수도 있겠고, 기존의 교회 조직 자체를 대신할 새로운 구조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⁷⁶⁾ 우리가 돌아갈 곳은 140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도 아니고, 우리의 첫 사랑이 짝튼 자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간직하라 권하는 사도 요한은 바른 신앙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임을 거듭 역설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빛으로 사세요, 세상은 사랑하지 마세요, 재물로 형제를 사랑하세요, 거룩함을 지키세요 등등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긴 편지의 마지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자녀들이여, 그대 자신들을 우상들로부터 지키십시오”(요일 5:21). 이단에 속아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제 우상숭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음행, 불평, 원망 등 이스라엘의 오랜 죄악상을 열거한 다음 “이 이유로, 내 사랑하는 이들 이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하고 마무리합니다(고전 10:14).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한국교회 140년의 우상을 권력, 재물, 이념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5) CCC는 김준곤 목사가 사위 박성민 목사를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세습 논쟁이 거세게 일었다.

76) 송인수 <평신도 교회가 온다> (잉클링즈, 2024)가 우리 시대 그런 대안의 하나가 된다.

MEMO